

500만달러 상담 실적 거두고 귀국

~ 제73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JETRO BIZMATCH@CEATEC JAPAN” ~

1985년부터 일본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와 공동 협력사업으로 시작하여 일본시장 개척 활동을 전개하면서 신규바이어 발굴을 통한 일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국방일수출촉진단 사업이, 금번 73차 미션을 8개사 15명으로 구성하여 10월 3일(월)~7일(금)까지 일본 치바 마쿠하리멧세에 파견하였습니다.



금번 미션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통신·정보·영상분야에 있어서의 아시아 최대 가전관련 전시회인 『CEATEC JAPAN 2005』 개최기간에 맞춰 JETRO측이 주최하는 『JETRO BIZMATCH@CEATEC JAPAN』에 참가하는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상담회 참가대상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북미, 구주, 아시아 각국이 동시에 참여하였으며, 사전 매칭을 통한 1:1 상담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기업 28개사 가운데 8개사만을 엄선하였으며 참가한 8개 기업은 일본기업 29개사와 36건의 상담을 통해 500만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거두고 귀국하였습니다.

한편 제74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은 오는 12월 7일(수)~10일(토) 일본 요코하마(국제화상기기전 2005)에 파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7회 한일산업무역회의 개최 안내

한일경제인회의 산하의 전문위원회(위원장 : 이석영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로서, 무역·기계·산업일반 분야에 있어서의 경제인간의 인식의 공유와 합의를 지향하는 정보와 의견교환의 장으로서, 한일경제인회의의 논의를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길잡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일산업무역회의가 금년 7회째를 맞아 오는 11월 21(월)~23일(수) 일본 교토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지역연대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경제정세 속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현상을 재조명하고, 미래를 향한 공동과제와 분야에 대한 정보교환 등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회원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김정호 차장 TEL : 3014-9866 / E-mail : jhkim@kjc.or.kr)

큐슈지역과 28개 협력사업에 합의

~ 제12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

일본 큐슈(九州)지역과의 무역·투자·기술협력 확대 등 지역간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양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등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양국간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제12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가 금번 10월 11일(화)~14일(금)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측에서 산업자원부 최평락 국제협력투자국장을 단장으로 대전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등 8개 지방자치단체와 한일경제협회, KOTRA, 한국무역협회 등 11개 관련 경제단체 등 45명이 참가하였으며, 일본(큐슈)측에서는 마츠이 테츠오(松井 哲夫)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큐슈지역 6개현 1개 政令市, 관련 경제단체 등 2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①중소기업간 무역, 투자, 산업기술협력 촉진, ② 무역, 투자, 산업기술협력 사절단 상호교환, ③연수 및 인재육성, 인재교류에 관한 협력, ④무역,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조사 및 홍보협력, ⑤지방간 경제교류 활성화 등 무역·투자·기술 분야의 협력을 위한 5가지 의제에 대해 논의를 거쳐 28개 협력사업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와 병행하여 한일간의 무역촉진을 위한 「한·일(큐슈) 바이오 산업협력」 세미나와 한국투자환경설명회도 개최되었습니다. 차기 회의는 2006년 일본에서 개최됩니다.

제5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안내

우리나라 환황해(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지역과 일본 큐슈(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현)지역 및 중국 환황해 연안(北京, 天津, 上海市, 遼寧, 河北, 山東, 江蘇省)지역과의 경제발전과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3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 등 관계자 2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3국간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제5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가 오는 11월 28일(월)~12월 1일(목)까지 대전광역시 유성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5회 회의와 병행하여 환황해 산학관연계 대학 총(학)장 포럼(배재대학교), 환황해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전국경제인연합회), 대덕 R&D 특구·첨단기술상담회(대전광역시), 환경·리사이클비즈니스 상담회(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심 있는 회원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조덕묘 차장 TEL : 3014-9855 / E-mail : dmcho@kjc.or.kr)

日本은 지금...

<~다움>을 잃은 소니와 산요

<總合化 志向, 실적부진의 근원>

부활을 기약하고 개선책을 발표한 소니와 三洋(산요)電機. 대표적인 국제 기업, 오히려 경영색이 짙은 기업으로 서로 이질적인 兩社이지만 각각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 서로 겹치는 점이 있다. 설립은 소니가 1946년, 산요는 1947년으로 같이 시기이다. 창업자의 個性이 회사를 쪽쪽 성장시킨 점도 공통된다.

소니는 <보우야/일본어 발음(친근한 호칭의 아가)> 라고 하는 의미의 영어 <SONNY (아가)>가 브랜드 명의 근거가 된 것처럼 창업자인 井深 大(이부가 마사루)씨, 盛田 昭夫(모리타 아키오)씨는 어디 보다도 작고 가벼운 참신한 상품을 추구했다. 세계 최초의 휴대 라디오, 세계 최초의 가정용 VTR, 더욱이 헤드폰 스테레오 <워크맨>... 세계를 놀라게 한 제품의 소형·경량화는 소니의 성장 원동력이었다.

산요에 흐르고 있던 것은 숫자에 대한 날카로운 감각이다. 물의 흐름을 일으켜서 세탁하는 噴流式 세탁기를 팔기 위하여 창업자인 井植 歳男씨가 생각했던 것이 <코끼리 1마리 무게만큼의 세탁물로부터 아내를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선언 문구. <5인 가족의 세탁물은 1개월에 56.25KG, 3年分은 2,025KG으로 동물원의 코끼리 1마리가 된다. 상대에 확 다가오는 숫자를 열거 판매점을 활용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歳男씨의 실제 남동생으로 매출액을 1조엔 규모로 확대한 3대째 社長인 薫씨도 <백엔 라이타는 부품이 24개, 원가는 30엔> 등 숫자를 근거로 한 토론을 자주 사원에 걸었다. 마케팅과 제품의 코스트 면의 치밀한 감각이 사업 발전의 내면에 있었다.

이러한 <소니 다움>, <산요 다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소니는 휴대 음악 플레이어로 미국 애플 컴퓨터 <iPod>에 추월당했다. <소프트와 하드의 융합>을 내걸면서도 독특한 기예·장기인 하드의 소형·경량화에서 뒤처졌다. 산요는 전부터 문제였던부품려진 체질을 지금도 질질 끌고 있다. 숫자로 조직을 움직였던 본사의 구심력은 어딘가로 날아가 버린 것 같다.

兩社の 실적부진의 배경에는 디지털 제품의 경쟁 격화 이전에, 성장 엔진이기도 했던 社風의 <喪失>이 있다. 소니는 음악·영화, 금융 산업을 확대. 산요도 금융과 물류 등의 유통·서비스에서 이익의 20%씩을 벌어들인다는 경영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 양사의 <소니 다움>, <산요 다움>이 후퇴한 것은 이 확장기이다.

소비자에 대한 호소력이 있는 제품 개발은 반도체 등 기간 부품의 기술 향상이 생명선이었지만 소니 사내에서는 <최근 10년, 전자 분야에의 명확한 투자 전략은 없었다> 라고 하는 소리가 있다. 산요도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제품 한 개 한 개의 마케팅과 코스트를 주도면밀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약해졌다. 모두 새로운 성장으로의 발길을 내딛음에 있어서 본디 지니고 있는 개성을 살려 나가면서도 기업의 토대를 재구축 하는 작업을 해 손실을 냈다.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중에 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했던 기업의 본래 문화가 흩어져 버린 電機 대기업은 그 외에도 많다. 日立(히타치)제작소의 성장 정체도 사람들의 생활을 一新 하는 기술 개발 이라고 하는 연구소의 문화가 서서히 사라져, 논문 작성에 몰두하는 연구자가 증가한 것이 한 원인이다.

전기 산업은 산업계 중에서도 가장 總合化를 추진해 왔다. <~다움>의 상실이라고 하는 오래지만 새로운 문제가 업적 부진의 뿌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료출처 : 일본경제신문 2005. 10>

☞ 상사에서 지적한 대로 양사 모두 금년에 경영진 교체(소니 외국인 CEO, 산요 여성 회장) 등으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부진의 늪에서 좀체 빠져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본래 지니고 있던 그 기업만의 독특한 <기업 이념, 기업 문화의 상실>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칭찬니케이션 能力 研磨

<人間 關係를 圓滑하게 한다>

상사와 부하, 동료들 칭찬하는 것은 의외로 어렵다. 조금 잘못하면 아첨으로 받아들일지 모른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의 칭찬은 기쁜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칭찬니케이션(칭찬+커뮤니케이션)> 잘 할 수 있는 칭찬術을 정리해 보았다.

<당신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칭찬 메일을 보냅니다>. 독특한 제품으로 알려진 小林製藥에서는 社長이 사원을 직접 칭찬하는 <칭찬 칭찬 메일>제도가 있다.

부하의 실적과 행동을 칭찬하고 싶은 소속 부서장은 社長室에 신청한다. 인정된 사원에게는 社長이 서두와 같은 메일을 사원에게 보낸다. 연간 약 90명의 사원이 칭찬 메일을 받고 있다.

<칭찬 받아서 기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사원의 의욕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도입했다>고 한다. 평사원은 社長과 얼굴을 맞댈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에 놀라움과 기쁨이 크다. 상사가 평상시의 행동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신뢰 관계의 구축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인은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서툴다. 입으로는 헐뜯고 마음으로 칭찬한다>를 미덕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대화 연구소의 회장으로 칭찬법에 관한 著書도 있는 福田씨.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부족이 두드러진 오늘날 <상대가 해아려준다 라고 하

는 것은 통용되지 않는다. 칭찬하는 기분도 언어(말)로 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칭찬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구체적으로 칭찬할 것. <느낌이 좋네> 등 추상적인 칭찬의 표현(말)은 설득력이 결여 되어 <어째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라고 염려를 상대방에게 품도록 한다. <전화 응대가 친절하고 시원시원 해>, <여러가지로 연구해 작성한 결과 자료가 읽기 쉽네> 등 구체적으로 열거 하면 상대도 솔직하게 받아들인다.

<저 같은 것이...>라고 입버릇 처럼 자기 평가를 낮추는 상대에 대해서는 <결점을 뒤집으면 장점이 된다는 것을 강조 하면 좋다> (福田씨). 일이 늦다 라고 하는 결점은 신중하다 라고 하는 장점도 된다.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칭찬하는 것도 효과적. <그는 잘 해> 라고 타인에게 말한 것이 본인에게 전달되는 일은 자주 있다. <사실은 좋게 생각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즐거움은 배가 된다. 반대로 <○○과장 평판이 좋네> 라고 제3자로부터의 좋은 평가를 전달하는 것도 칭찬 표현이 된다.

福田씨는 <칭찬 표현은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거짓말처럼 들릴지 모른다> 라고 지적 한다. 사람의 결점은 눈에 띄기 쉽지만, 좋은 점을 칭찬 하는 데에는 장점을 꿰뚫어 보는 눈이 필요하다.

어려운 것이 부하가 상사를 칭찬하는 칭찬術이다. <과장님의 플랜이 좋네요>라고 하

면, 너에게는 듣고 싶지 않네 라고 상사는 반발하고 싶게 된다(福田氏).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 상사가 부하를 모이게 하여 이야기를 하는 경우. 끝난 후에 <상당히 감명받았습니다. 그 대사는 어떤 저명한 사람의 말입니까?>라고 물으면 <열심히 듣고 있었군>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다.

<남녀 심리를 이해 하여 칭찬하는 방법을 바꾸어 보면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소기업 지도사로 심리 컨설턴트로 근무 하는 織田씨. 특히 남성이 주의해야 하는 것은 여성 후배들의 칭찬법이라고 한다.

여성을 칭찬할 때에도 <당신의 제안은 회사에 이익을 내게 한 대단한 것이다> 등으로 칭찬 하는 경향이지만, 여성들은 <이 대단한 제안을 생각해 내기 위해서 매일 밤늦게 까지 남아서 열심히 한 결과이네>라고 과정을 칭찬 받는 편을 오히려 기뻐한다.

여성이 관련되어 해 온 가사와 육아는 성과가 별안간 크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사소한 반복이 중요. <그 흔적으로부터 일까? 여성은 열심히 해온 과정을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경향이 강하다>(織田氏).

사람은 제각각 개성이 있어 몹시 꾸짖는 것은 위험.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칭찬니케이션의 達人이 되는 길에 한걸음 더 가까워 질 것이다.

☞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자료출처 : 일본경제신문 2005. 10>



< 칭찬 達人이 되는 10계명 >

1. 상대의 장점과 아름다운 점에 눈을 돌려라. ☞장점을 간파하는 눈과 좋은 부분을 인정하는 도량이 필요
2. 칭찬하는 말(표현)에 감정(마음)을 집어넣어라. ☞남성은 칭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솔직하게 칭찬하자
3.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막연한 칭찬은 오히려 상대를 불안하게 한다.
4. 잘 한 그 순간에 칭찬하라. ☞2, 3일 지나서 칭찬하면 일부러 칭찬하려고 한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5. 당연한 것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을 칭찬하라. ☞시간을 지키는 등 알고 있는 것이라도 할 수 없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6. 상대의 결점을 칭찬하라. ☞결점도 視点を 바꾸면 장점으로. 일이 늦어져도 신중형 등 결점을 장점으로 간주
7. 결과만이 아닌 과정도 칭찬하라. ☞결과 만이면 요령 좋은 사람만이 대우 받아 직장의 사기가 떨어진다.
8.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칭찬하라. ☞엄한 사람, 싫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사실은 좋게 생각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기쁨은 倍로 증가한다.
9. 전화와 메모를 사용해서 칭찬하라. ☞얼굴을 앞에 두고 칭찬할 수 없다. 수줍음을 잘 타는 사람에 적합
10. 칭찬 후에는 다음의 목표를 이야기한다. ☞칭찬 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격려한다. 지원도 중요

會員 動靜 & 短信

■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 주최로 9월 27일 (화) 오후 3시부터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제21회 한일재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한일재계회의에는 우리협회의 **조석래(趙錫來) 회장**(효성 회장), **김윤(金鈞) 부회장**(삼양사 회장), **박삼구(朴三求) 부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신동빈(辛東彬) 부회장**(롯데그룹 부회장), **조양호(趙亮鎬) 부회장**(대한항공 회장), **최용권(崔用權) 부회장**(삼환기업 회장)을 비롯해 한국측에서 강신호 회장 등 14명이, 일본측에서는 오쿠다 히로시 일본경단련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및 위원장단 15명이 각각 참석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조석래 회장의 '동아시아 경제연대 촉진을 위한 한일의 역할'**이라는 주제 연설을 비롯하여 ▶한일 양국 기업이 직면한 과제, ▶한일 FTA와 한일산



업협력 전망 등의 의제에 관해 토의하였다. 그 결과 양측 참석자들은 동아시아 경제 공동번영을 위해 한일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한일 FTA의 조기체결을 위해 양 단체가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입니다. 일류기업을 지향하는 ‘뉴 한화’의 건설을 위해 발 빠른 조직으로 거듭납시다.” **김승연**



(金昇淵) 부회장(한화그룹 회장)이 그룹창립 53주년인 10월 10일 ‘뉴 한화’ 건설을 선언하며 임직원들에게 “일류기업, 일류직원, 일류문화를 지향하자”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5~10년 뒤를 내다본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금융사업 부문의 미래 비전이야말로 그룹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므로 강력한 경쟁우위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삼구(朴三求) 부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8일 (수) 서울 신라호텔 토파즈룸에서 지난 9월 26일 방한한 리커창(李克强) 중국 랴오닝(遼寧)성 당서기의 환영 행사를 갖고 랴오닝(遼寧)성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중우호협회 회장인 박삼구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랴오닝성(遼寧)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가깝게 자리 잡고 있어 원료나 자본재 수출입에 상당히 유리할 뿐 아니라 많은 조선족들이 생활하고 있어 역사적, 문화적으로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이다."라며, "아무쪼록 랴오닝성(遼寧)과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조양호(趙亮鎬) 부회장**(대한항공 회장)은 10월 14~15일 주한 외교사절을 제주도로 초청, 한국문화를 알리는 친선 행사를 가졌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워릭 모리스 영국 대사 부부와 프랑스 필리프 티에보 대사 등 21개국 40여명의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해 제주 민속촌 박물관과 섬지코지 등을 방문했다. 조 회장은 "우호를 다지는 행사가 외교관계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개인이든 기업이든, 자치단체든 21세기 경쟁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필수조건입니다” **현명관(玄明官) 부회장**(삼성물산 회장)이 11일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가나안 농군학교 신용협동조합 초청 특강에서 ‘글로벌 경쟁력과 성공조건’이라는 주제로 21세기 생존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제시했다. 현명관 부회장은 강연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주인의식과 경쟁의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 목표의식, 도전의식, 끊임없는 혁신 등 5개의 전제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허남정(許南整) 전무이사**는 지난 10월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4차 한중일 비즈니스포럼」에 운영위원 자격으로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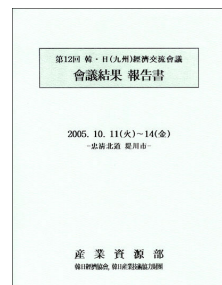


석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일 FTA 전망과 과제,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중일 협력, 한중일 에너지 협력과 Business 원활화 방안, 한중일 산업간 협력 강화방안 등 4개 의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한중일의 유력 경제인 450명이 참석하였으며 전자, 석유화학, 철강, 섬유, 물류 등 5개 업종의 분과포럼이 개최되어 3국간 협력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 일본 經團連은 내년 5월에 퇴임하는 오쿠다(奥田) 회장(토요타 회장)의 후임에 미타라이(御手洗 富士夫) 부회장(70, 캐논 사장)을 기용 하는 인사를 내정했다. 정밀기계 메이커 출신의 회장은 최초이며, 캐논(CANON)을 국제적인 하이테크 기업으로 키워낸 수완이 크게 평가했다. 미타라이 사장의 기용은 연내에 열리는 회장·부회장 회의에서 승인하여 내년 5월의 총회에서 정식으로 결정한다.

■ 제12회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여 회원사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문의 : 조덕묘 차장>



<사무국 직통전화·이메일>

허남정 전무이사	njhuh@kjc.or.kr
유봉우 사무국장	02-3014-9833 bwryu@kjc.or.kr
조덕묘 차장	02-3014-9855 dmcho@kjc.or.kr
김정호 차장	02-3014-9866 jhkim@kjc.or.kr
심규진 과장	02-3014-9877 kjsim@kjc.or.kr

☞ 2005년도 한일경제협력 주요사업 Calendar ☜

월	일 자	행 사 내 용	지 역
1	20(목)	제37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사전회의 개최	서울 (협회 회의실)
2	3(목)~5(토)	2005년도 오무따(大牟田) 산업미션 유치	서울
	4(금)	회장단회의(이사회) 개최	서울 (신라호텔)
	11(금)~15(화)	제4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파견	도쿄
	14(월)~18(금)	한일부품소재상담회 개최	오사카·큐슈
	15(화)	주한일본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서울 (신라호텔)
	17(목)	제24회 정기총회 개최	서울 (신라호텔)
	25(금)	지식산업기술연수 평가회	서울
	27(일)~3.5(토)	04경영관리연수	요코하마
4	14(목)~15(금)	제37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개최	서울 (신라호텔)
5	8(일)	주한일본대사 초청 골프행사 개최	서울 (송추C.C)
	16(월)~19(목)	제4회 부품소재상호보완상담회&세미나 개최	도쿄
	23(월)~6.4(토)	05경영관리연수 1차	도쿄
6	9(목)~11(토)	아시아산업교류페어 파견	키타큐슈
	13(월)~17(금)	생산성향상 단기컨설팅	한국
	19(일)~7.2(토)	품질관리연수 파견	오오이소
7	10(일)~16(토)	한국차세대경영자교류단 파견	일본
	11(월)~8.12(금)	지식산업 기술연수 국내어학연수	안산
	19(화)~22(금)	제6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	경주 (현대호텔)
8	6(토)~10(수)	제5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파견	도쿄
	22(월)~11.12(토)	지식산업기술연수 파견	일본
9	4(일)~16(금)	05경영관리연수 2차	도쿄
	26(월)~30(금)	한일산업기술촉진미션 파견	오사카 등
10	3(월)~7(금)	제73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파견	치바 (마쿠하리멧세)
	11(화)~14(금)	제12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최	제천
	13(목)~14(금)	제4차 한중일 비즈니스포럼 개최	서울 (롯데호텔)
	27(목)	제5회 부품소재상호보완상담회 개최	서울
	28(금)	2005년도 한일산업협력 특별세미나 개최	서울
11	21(월)~23(수)	제7회 한일산업무역회의 개최	교토
	28(월)~12.1(목)	제5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대전
12	4(일)~10(토)	일본차세대경영자교류단 수용	서울 등
	5(월)~19(월)	이공계대학생산업기술체험캠프 파견	도쿄 등
	7(수)~10(토)	제74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파견	요코하마
	10(토)	주한일본대사 초청 골프행사 개최	서울 (송추C.C)
	13(화)~16(금)	한일·일한경제협력 정례업무협의 개최	도쿄·삿쵸로
		주한일본특파원 초청 간담회 개최	서울